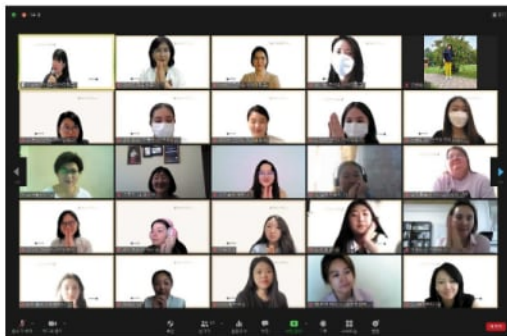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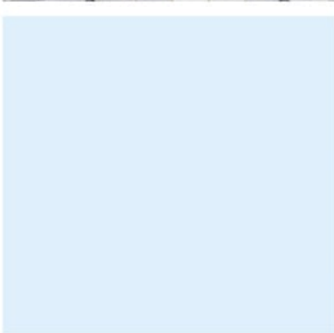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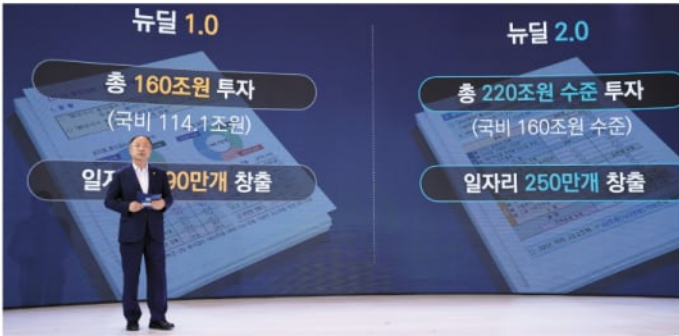




특집 _ 도쿄 올림픽서 활약한 '한국계' 선수들... 한민족 자긍심 널리 알려
 기획 _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지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화제 _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



미나리와 재외동포, 그리고 가족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감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영국과 미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잇달아 받았다. ‘기생충’이 어느 사회에나 있는 빈부 격차의 현실을 아프고 격하게 그려내어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면, ‘미나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이주한 가족이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영상에 담담하게 담아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미나리’는 미국에서 동포 감독이 만든 한국 이민 가족에 관한 영화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특히 이주민들에게는 피부에 닿는 이야기다.

이 영화가 높게 평가받은 것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일흔이 넘는 윤여정 씨의 연기는 전형적이지 않아 주목되었다. 그렇지만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도 음미해 볼 만하다. ‘잡초처럼 아무 곳에서나 잘 사는’ 미나리와 같은 생명력을 가진 가족의 이야기, 파종 후 두 번째 해부터 잘 자라듯 다음 세대에 더 성취가 있으리라는 믿음의 이야기 속에 가족애라는 보편적 가치가 깊게 깔려 있다. 동시에 한국인 가족애의 독특한 모습이 잘 버무려져 공감과 찬탄을 받는 것이 아닐까?

가족!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기반이자 이유인 가족은 영화의 단골 소재다. ‘미나리’는 이민과 세대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말하자면 다중의 갈등 요소를 가진 3대가 함께 살며 서로 이해하고 돕는 가족살이를 찬찬히 감동적으로 그려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가족이나 국내의 가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주민 가족의 삶은 그동안 간직해 온 전통적 정체성과 새롭게 직면하는 낯선 정체성이 충돌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이기도 하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한국 할머니’와 ‘미국 손자’를 통해 이해와 포용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자칫 축적되고 침잠되어 회복하기 어렵게 심화될 수 있는 세대와 문화적 차이를 완만하게 해소해나가는 스토리의 전개가 박수를 받는 것이다. 이런 점들로 볼 때 미나리는 디아스포라의 시각으로 이주민 가족의 삶을 그린 특별한 영화라고 할만하다.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커진 데는 문화예술인들이 발휘한 창의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 저변에는 표현의 자유와 경제 발전이 자리 잡고 있다. 자유로운 공기와 경제적 뒷받침이 뛰어난 창의력을 살찌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문화가 널리 공감을 얻는 현상은 대중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토끼와 거북이’ ‘의좋은 형제’ ‘해님과 달님’ ‘흥부와 놀부’ ‘단군신화’ 이야기가 과테말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동화가 외국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음악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보편성이 세계와 소통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세계 학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경제력이나 대중문화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추 기관이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재외동포와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을 편찬하여 동포들의 삶의 자취와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

고,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국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의 진수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고 동포 사회와 협력하도록 꾸준히 애쓸 것이다. 이를 통해 동포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 곳곳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02 권두언 미나리와 재외동포, 그리고 가족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04 특집 도쿄 올림픽서 활약한 '한국계' 선수들... 한민족 자긍심 널리 알려
- 06 기획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지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 08 화제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
- 10 글로벌 코리안 美동포 손창현 박사, 국제우주환경시스템학회상 수상
유대진 GSC 대표 "한상 네트워크로 韓 상품 해외 진출 돕는다"
이선호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장, "한중 경제협력 가교 역할"
- 12 한민족 공감 1 재미 제주4·3 사협회·유가족회 출범... 미군정 조사 도움 기대
- 13 한민족 공감 2 남미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한류... 'K-엑스포' 브라질 개최
- 14 유공 동포 독립운동가 계봉우 선생 아들 계획림 씨 카자흐서 별세
- 15 주목! 차세대 한인 1.5세 한나 김씨, 美 연방 보건복지부 부차관보 임명
- 16 동포소식 박의장, 그리스 동포 간담회... "여러분이 문화사절" 외
- 19 동포 캘린더 광복회 호주지회, 9월 동포 차세대 '민족캠프' 개최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코로나 위기에 손 맞잡은 미안마 한인사회 "함께 헤쳐나갑시다"
- 21 지구촌 통신원 2 영국 하원서 美한반도평화법안 지지 결의안 발의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증개축에 50만달러 지원하기로 외
- 24 유관단체 소식 정부, 외국인·재외도포 우수 인재 적극 유치 외
- 25 기고문 한국정부, 재외국민을 위한 솔리다리테 정책 개발해야
최인숙 고려대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파리정치대학 정치학박사
- 26 재단공지 '2021 Korean Festival: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참가자 모집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서 활약한 ‘한국계’ 선수들… 한민족 자긍심 널리 알려

모국과 거주국에 메달 헌납, “이방인 취급 이겨내고 실력으로 승부”



시계방향으로 캐나다 태권도 국가대표로 출전한 스킨리 박(오른쪽)은 한국인 아버지와 칠레·이탈리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다. 도쿄올림픽 3대3 농구에서 일본을 상대하는 루마니아 국가대표 김소니아, 일본 소프트볼 대표팀 포수로 활약한 기요하라 나유, 미국 테니스 국가대표로 출전한 입양인 출신의 제시카 페굴라, 도쿄올림픽 여자골프에서 뉴질랜드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딴 리디아 고



지구촌 최대의 축제 한마당인 ‘2020 도쿄 올림픽’은 ‘한국계’ 선수들의 활동이 어느해보다 두드러졌다. 일부 선수는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해 모국에 메달을 헌납하는가 하면, 거주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출중한 기량을 선보이며 한민족의 긍지와 자긍심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재외동포가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첫 메달을 모국에 선사한 것은 놀랍게도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다. 당시 한국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 순위 26위를 차지했다. 이 중에 유도 남자 80kg에서 동메달을 딴 이가 재일동포 김의태다. 이 메달은 유도 중주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획득한 것이라 더욱 빛났다.

8년 뒤인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은

은메달 1개에 그쳤다. 이때도 메달의 주인공 역시 유도 남자 80kg에 출전한 재일동포 오승립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인 선수 중 유도에서 한국에 동메달을 선사한 재일동포 안창림의 투혼이 돋보였다. 그리고 입양인 출신으로 미국 기계체조 마루 종목 대표로 나와 6위에 오른 울 몰다워 선수의 한국사랑 이야기가 감동을 선사했다.

이민, 국제결혼 후손, 입양인 등 다양한 한국계 선수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거주국 국가대표로 뛴 선수들은 이민 또는 국제결혼 후손이 많았고 일부는 해외 입양인도 있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는 4명의 귀화 선수가 함께했다. 이들은 캐나다 동포인 공격수 박은정(캐롤라인 박)과 임진경(대닐 임), 미국 입양아 출신의 수비수 박윤정(마리사 브랜트),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공격수 랜디 희수 그리핀으로 모두 재외 동포 출신이다.

조국에 메달 안긴 안창림 “일본인이었던 적 한 번도 없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3대3 농구에는 국내에 친숙한 얼굴이 출전했다. 우리나라는 3대3 농구에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에서 뛰는 김소니아(28)가 루마니아 국가대표로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인 아버지와 루마니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소니아는 어머니 성을 따라 ‘소니아 우르수’라는 이름으로 출전했다. 루마니아 팀은 안타깝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김소니아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농구 국가대표 출신의 이승준(43)과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소프트볼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 대표팀 포수를 맡은 기요하라 나유(30)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국적을 변경한 선수다. 기요하라는 한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1991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일본에서 자란 그는 고등학교 때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 소프트볼 대표팀 에이스 우에노 유키코의 활약에 감동을 받았다. 이후 ‘세계 최고의 팀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 국적 취득을 결심했다고 한다.

태권도에서는 여자 57kg급 캐나다 국가대표로 나와 8강까지 올랐던 스카일러 박(22)이 있다. 스카일러 박은 한국인 아버지와 칠레·이탈리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수다. 6월 팬암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2016년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오른 실력파다.

테니스 여자 단식 33위와 여자 복식 5위에 오른 미국 국가대표 제시카 페굴라(27)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선수다. 그의 부모 테리 페굴라, 킴 페굴라는 미국프로풋볼(NFL)과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프로팀 구단주로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가다.

호주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세범(20)도 400m 개인혼영에 나왔으나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밖에 여자 골프에서 대니얼 강(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민지(호주) 등 모두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동포 선수들이다. 이들은 한국 선수들과 금메달 경쟁을 벌였고 리디아 고가 3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거머쥘다. **창**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동메달을 딴 재일교포 3세 안창림(27·KH그룹 필룩스)은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는 한국인, 한국에서는 일본인으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안창림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일본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귀화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일본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은 안창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차별을 당했다.

안창림은 쓰쿠바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3년 전일본학생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일본 유도의 차세대 에이스 재목감으로 꼽혔는데 2014년 아예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 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일본 유도계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 “안창림만은 꼭 꺾어야 한다”는 말이 일본 대표팀 내에 돌았다고 한다.

안창림은 일본 유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투혼을 펼쳤다. 그는 그가 나고 자란 일본 땅에서 조국 대한민국에 메달을 바쳤다.



체조 6위 올 몰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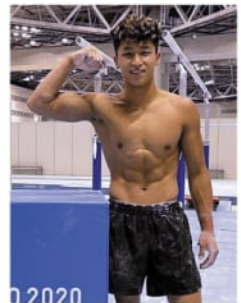
“문신 새기면 성조기·태극기 절반씩 할 것”

미국 체조 남자 국가대표팀 올 몰다워(24)는 한국계이다. 그는 기계 체조 남자 마루 결선에서 6위에 그쳤지만 2018년 미국 체조 올해의 남자선수로 선정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더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96년 8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난 지 5개월이 됐을 때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몰다워 부부에게 입양됐다.

몰다워 부부는 어린 시절 유달리 머리숱이 적었던 그를 보고 배우 올 브리너의 이름을 따 ‘올’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올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란 것에 모두 감사하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말한다. “항상 저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신을 새긴다면 성조기와 태극기를 절반씩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내년에는 제가 태어난 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창**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지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57년 역사상 처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한다

U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7월 2일 한국 TT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일치)를 이루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무역과 투자 통한 성장, 국제사회 공인

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기구에서 전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57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동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증명해 온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

유무역에 기반을 둔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진국 그룹 진출을 위해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들과 협업했다. 특히 제네바에서 UNCTAD 회원국들 및 사무국과도 긴밀히 사전 조율을 추진했다.

선진국 지위 변경이 가결된 후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임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 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도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6월 22일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3

바 있다.

이번 지위 변경에 대해 주제네바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U 역시 한국의 선진국 그룹 포함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에 설립됐으며 1964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은 그룹 A, B,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구분됐다.

우리나라는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포함돼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번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이러한 그룹 변경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4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연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1.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2.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3. 유엔무역개발회의는 7월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태극기를 비롯한 국기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4. 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

문대통령 “고용안전망 구축, 청년층 집중 지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여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된 양극화에 대응하고자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 ‘휴먼 뉴딜’

정부는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청년정책에 8조원, 교육·돌봄 격차 해소에 5조7천억원 등 총 50조원을 투입한다.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50만개로 60만개 늘었다. 이로써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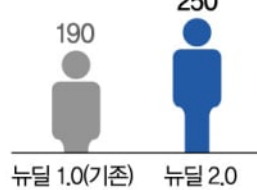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외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

한국판 뉴딜 2.0 주요 내용

총 사업비(단위: 조 원)
2020년 추경 ~ 2025년



일자리 창출(단위: 만개)
2020 ~ 2025년



분야 국비 투자규모, 단위: 조 원

디지털 뉴딜	49.0
1. D.N.A 생태계 강화	33.5
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3.2
3.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신설)	2.6
4. SOC 디지털화	9.7
그린 뉴딜	61.0
1.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설)	4.8
2.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16.0
3.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0.0
4.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0.2
휴먼 뉴딜	50.0
1. 사람투자	9.3
2. 고용·사회 안전망	27.0
3. 청년정책(신설)	8.0
4. 교육·돌봄 격차해소(신설)	5.7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배치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병역 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



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돌봄 격차 시정,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서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메타버스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세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 소통, 협업 등을 지원하는 기술과 플랫폼을 말한다.

특히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해 정부가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키운다.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데이터를 개발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현재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 기술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에 관한 법 등 디지털 경제전환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인 6세대(6G)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 뉴딜 펀드 조성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천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올해 조성된 2천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만 30조원 이상이다.

정부는 뉴딜 2.0 정책의 일환으로 8월 중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

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 이덕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美동포 손창현 박사, 국제우주환경시스템학술회상 수상 우주환경 제어·생명 보조장치 분야 공적 인정 받아

재미동포 손창현 박사가 국제우주환경시스템학술회(ICES)에서 매년 우수 과학자 1명에서 수여하는 '2021 ICES 상'을 최근 받았다.

ICES는 유인 우주 개발 관련 첨단 논문이 매년 300여 편 발표되는 50년 전통의 학술회다. 우주환경 제어 및 생명 보조장치, 우주 열 제어 시스템, 우주유영 활동 분야에서 관련 최첨단 기술 연구 기여도,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 학회 발전에 기여한 노력 등이 인정되는 한 명을 선정해 'ICES 상'을 수여하고 있다. 손 박사는 32년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환경 제어와 생명 보조장치 분야에서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우주복 전지에 응용되는 상변화 물질의 열특성치 향상에 관한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첨단 항공우주 산업체인 보잉사에 재직하며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나사(NASA)의 우주정거장 환경 조정 및 생명 보조장치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또 우주정거장 프로젝트 참가국인 러시아,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선진 16개국에서 개발하는 시스템과 실험 동 등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해 심의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손 박사의 많은 연구 및 기술 분석 결과는 현재 우주정거장의 표준 운영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 2006년 우주왕복선 긴급 구조비행에 따른 우주선 캐빈 실내 이산화탄소 조절에 관한 획기적인 설계 변경 연구로 우주승무원 그룹으로부터 특별상을 받았다. 2014년 ICES 의장으로 선임된 손 박사는 가스분자, 특히 이산화탄소 분리 기술의 연구로 3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꿈과 비전의 실현을 돕는 '나의꿈국제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대진 GSC 대표 “한상 네트워크로 韓 상품 해외 진출 돕는다” 내몽골서 백화점 운영, 마당발 인맥으로 글로벌마케팅 플랫폼 구축

“상품성과 기술력을 가진 개발·제조사와 현지 시장에 정통한 바이어 또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B2B(기업 간 거래)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상(韓商)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로 윈-윈하자는 취지입니다.”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마당발로 통하는 유대진(62) GSC인터내셔널 대표는 '박람회 전문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상공회 회장이던 2002년부터 5년간 '코리아트레이드엑스포' 조직위원장을 역임했고, 2006년부터 10년간 중국 조선족자치주의 주도인 엔지에서 열린 '연길·두만강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상임준비위원장을 지냈다.

유 대표는 “국내서 조명받지 못하던 제품이 한상을 만나 해외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거나, 개발만 해놓고 상용화 못한 기술이 해외 투자자를 만나 빛을 보는 사례를 만들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GSC는 해외에 14개 지역 본부와 65개 지사를 두고 국가와 도시별로 160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제품을 GSC가 해외 판권을 받아서 160개 센터를 활용해 현지 유통을 추진하거나 중개하는 비즈니스가 주력이다. 또 각국의 우수 상품을 발굴해 판로 개척과 기술 이전·투자 사업도 병행한다.

유 회장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자체통상교류위원회 위원장,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적게는 18년에서 많게는 30여 년 간 맺어온 신뢰 관계 덕택에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365일 상담회가 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후룬베이얼에서 2016년부터 한국 상품 등을 취급하는 백화점과 헤이룽장성 제2 도시 치치하얼의 한국상품도매센터에서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선호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장, “한중 경제협력 가교 역할” 조선족 경제인·경제단체 등 참여 민간 경제 외교 사절단 지향

최근 발족한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KDG)의 이선호 회장은 “조선족 경제인들의 구심체가 되 한중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영리 경제단체인 KDG는 6월 28일 서울 마포구 예코밸리 빌딩에서 창립행사를 열었다. 국내 조선족 경제인과 경제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창립 멤버에 이름을 올렸다.

양국간 ‘민간 경제 외교 사절단’을 지향하는 KDG는 재한동포 경제인들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학술 세미나와 포럼 등의 교류 활동을 비롯해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해찬·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무성 전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등이 축하 영상을 보내왔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축전을 보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 외교부 산하 아주경제발전협회 권순기 회장, 표성룡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박철 정협 위원, 강성민 베이징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등이 축하 인사말을 영상으로 전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80만 명의 재한동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 말까지 회원 1천 명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또 첫 행사로 ‘한중 청년창업포럼’을 열겠다”고 밝혔다.

조선족 출신으로 홍콩강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중국 건설은행에서 근무하다 베이징 후이형세기과학기술유한공사 사장을 지낸 뒤 2010년부터 6년간 경남 중국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일했다. 이후 중국실크로드특별기금위원회 부비서장겸 주한국 총대표를 맡았고 현재 실크로드국제문화경제무역합작교류조직(SICO) 부비서장 겸 주한국 총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재미 제주4·3사업회·유가족회 출범… 미군정 조사 도움 기대

미국 주요도시에 기념비 건립, “4·3 메시지 널리 알리겠다”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가족회는 7월 16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수연(제주여고 39회) 회장은 “미국 주요도시에 기념비 건립을 추진해 4·3의 메시지를 똑똑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년간 준비를 거쳐 사업회가 출범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4·3 사건에 휘말려 어느날 갑자기 끌려가 죽임을 당했던 조부와 불법 재판을 받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삼촌 이야기 등 불행했던 가족사를 털어 놓았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양 회장은 “아버지가 사라진 섬, 어머니가 사라진 섬, 형제자매들이 사라진 섬, 아버지의 평생의 한과 서러움을 저도 물려받았다”며 “제주를, 고국을 떠난 지 오래 됐지만 이 머나먼 미국 땅에 와서도 유족들은 4·3을 결코 잊지 못한다. 뺏속깊이 각인돼 있기 때문”이라고 걱정을 토해냈다.

양 회장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2009년 뉴아메리카미디어(NAM)가 매년 우수한 기사를 발굴해 시상하는 ‘전미 에스닉 미디어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이 상은 미국 3천여 개 매체 중 우수한 기사를 찾아 시상하는 한국판 ‘올해의 기자상’과 같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주간지 ‘보스턴 캡(Boston KAP)’을 발행한 양 씨는 당시 편집자 부문 2위를 차지해 이 상을 받았다.

부회장은 재미 유가족회 준비위원장인 한의사 양영준(제주제일고 34회) 씨, 사무총장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제주 4·3 관련 박사논문을 준비 중인 김유정(신성여고 52회) 씨가 맡았다.



양수연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가족회 회장(왼쪽), 7월 16일 영상 회의를 통해 진행된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가족회 출범식 모습.

재미 제주 4·3 기념 사업회·유가족회는 앞으로 이민자 4·3 희생자 유족을 찾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 4·3 진상 규명과 연대와 확장, 차세대 교육을 목표로 하며, 미국 주요 도시에 4·3 기념비를 건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군정 시기 발발한 4·3의 진실 규명을 위한 현지 조사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풀기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 4·3 기념 사업회·유가족회 영문 공식 명칭은 ‘Jeju 4·3 Memorial and Families Association of the U.S.A’이며 약칭은 ‘43FAU’이다. 사업 추진 일정 등 자세한 활동 소식은 홈페이지(www.43jeju.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가족회 관계자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미 제주 4·3 기념 사업회·유가족회의 출범은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운동에 박차를 가할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

남미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한류... 'K-엑스포' 브라질 개최

케이팝 스타 팬미팅 ·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콘텐츠 선보여

남미 지역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인 'K-엑스포(Expo) 2021'이 7월 29일부터 8월 1일 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열렸다.

'K-엑스포'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한류 행사다. 상파울루를 남미 한류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취지 아래 브라질 한국문화원 주도로 2017년부터 5년째 열렸다.

2017년 첫째 6천여 명을 시작으로 2018년 1만4천여 명, 2019년 1만7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다.

올해 K-엑스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과 트위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인타운이 형성된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의 K-스퀘어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한류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나흘간 계속된 이번 행사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 케이팝 아이돌 레아가 속한 그룹 '블랙스완'의 온라인 실시간 팬 미팅과 브라질 케이팝 아이돌 '드림좌-빅토르 한' 콘서트 등을 통해 케이팝의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7월 31일에는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는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에서 김혜순 명장의 한복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패션쇼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패션쇼에는 황인상 상파울루 총영사와 김완국 문화원장, 한인동포, 브라질 문화예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혜순 명장은 한국인 디자이너 최초로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프랑스 파리 루브르에서 초청 패션쇼를 선보인 바 있다. 이를 비롯해 세계 25개 도시에서 50회 이상의 패션쇼



7월 31일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에서 김혜순 명장의 한복 패션쇼(오른쪽). 남미 지역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인 'K-엑스포 2021'이 7월 29일부터 나흘간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열렸다. 사진은 K-엑스포 행사장.

와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한복 패션쇼는 '나들이'와 '한국의 사계(四季)'를 주제로 제작된 김혜순 명장의 한복 20벌이 화관무·화선무 등 전통무용과 함께 소개됐다.

이밖에 한국-브라질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듣는 토크쇼, 케이팝 경연대회, 한국 태권도장 체험기, 한식 프로그램, 한글 캘리그래피, K-드라마, 가야금 콘서트, 광장시장, 민속촌 가상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김완국 문화원장은 "온라인으로 K-엑스포를 개최하게 돼 아쉽기는 하지만, 덕분에 상파울루에 한정되지 않고 브라질 전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반겼다.

한편, 'K-엑스포'가 끝난 8월 1일부터는 상파울루 시내 지하 철역 2곳에서 한식과 궁궐을 주제로 한 '한류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8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식을 사진과 모형으로 전시한다. 이 전시에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경복궁·덕수궁 등 궁궐이 사진으로 소개된다. **▶**

독립운동가 계봉우 선생 아들 계학림 씨 카자흐서 별세

평생 부친 항일 사료 수집·정리, 홍범도 장군 묘역 관리

독립운동가 계봉우 선생의 아들인 계학림 씨가 최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7월 7일 현지 동포 매체 한인일보가 전했다. 향년 95세.

국어학자이자 항일투사인 북우(北愚) 계봉우(桂奉瑀·1880~1959) 선생의 셋째 아들인 고인은 192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크즐오르다에서 아버지가 작고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

계학림씨는 많은 고려인이 러시아식 이름을 쓰는 것과 달리, 지금까지 자신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자긍심에 '아버지가 주신' 한국 이름을 고집했다.

함경도 영흥 출신인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로 망명해 이동휘 선생과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며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북간도 대표로써 상해에서 임시정부 일을 도왔다. 이 때에 월간지 '대진' '구국일보' '권업신문'의 기자 등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글들을 많이 남겼다.

계봉우 선생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1937년 카자흐스탄 중부도시 크즐오르다로 넘어왔다. 그는 항일운동으로 1916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3년의 옥고도 치렀다.

국어학자이던 선생은 민족주의 교육에 헌신했다. 그는 58세에 크즐오르다에 온 후 80세로 현지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조선문법', '조선말의 되어진 법' 등 30여 편의 저서를 남기며 국어, 한국문학 등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다.

계봉우 선생의 업적은 구 소련 시절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한인사회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의 만년 저술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야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 그 해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아들 계학림 씨가 내한해 '이두집해'



계학림(왼쪽). 카자흐스탄 고려인 집거지 크즐오르다 소재 계봉우 선생 동상.

등의 원고를 처음 공개했다.

계봉우 선생의 유해는 2019년 5월 고국으로 봉환했다.

교사로 정년퇴직한 계학림 씨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와 원고를 대외에 알리는 일을 했고, 아버지와 독립운동을 함께한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관리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

계씨는 아버지를 잡으러 온 일본군이 집에 세 번이나 불을 지르며 가족들을 괴롭혔던 사실을 회상하다가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족보에서조차 아버지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던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는 생전에 "한국정부에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고려인들과 국외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현지에 항일사적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계씨는 그러면서 "국외 항일투사들의 정신과 희생을 이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계씨의 별세로 현재 카자흐스탄에 생존한 독립운동가 2세는 김경천 장군의 막내딸 김지희 씨, 최계립 선생의 딸 최 알렉산드라 씨, 황운정 지사의 아들 황마이 씨 등 3명이다. **창**

한인 1.5세 한나 김씨, 美 연방 보건복지부 부차관보 임명

미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제정 기여, 숭고한 희생 위로 앞장

한인 1.5세 한나 김(한국명 김예진·38) '리멤버727' 대표가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 부차관보에 발탁됐다.

김 대표는 7월 21일 "보건복지부 공보국 부차관보에 임명돼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보건의료연구소(AHRQ), 소비자정보·보험감독센터(CCIIO),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보건자원서비스부(HRSA) 등 산하 기관과 공보국을 총괄한다.

김 부차관보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역량을 다해 하겠다"며 "차세대 한인 여러분도 누구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일찍이 한국전 참전용사에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사업을 펼쳤다. 2009~2016년 친한파 의원이었던 찰스 랭걸 전 하원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하다 2016년 12월 랭걸의 정계 은퇴와 함께 워싱턴 정가를 빠져나왔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랭걸 전 의원은 46년(23선)간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0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결의안,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축구 결의안, 6·25전쟁 추모의 벽 건립안 등을 주도했던 미국 정치권의 대표적 친한파다.

김 씨가 정가를 나온 것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



전 세계 26개 한국전쟁 참전국가를 돌며 참전용사를 만난 재미동포 한나 김씨(왼쪽)가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보좌관 시절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고, 정전협정일에 즈음해 희생자 추모와 평화 기원 촛불 문화제를 주최하기 위해 한인 1.5세 청년들을 모아 '리멤버 727'을 결성했다.

2017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세계 26개국을 돌며 한국전 참전용사 200여 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시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점점 잊혀가는 한국전쟁의 기록을 찾아 전 세계 참전용사가 사는 나라를 방문한다"며 "그들에게 살아생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하고, 소장 자료와 당시의 이야기를 모아 후세에 남기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취지를 말했다.

2018년에는 미국 50개 주를 돌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나고 70개 도시에 세워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찾아가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워싱턴DC 한국전쟁 기념공원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다.

6살때 미국에 이민한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뒤 다시 귀국해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UCLA에서 전문경영인 과정을 수료하고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

박의장, 그리스 동포 간담회… “여러분이 문화사절”

“조선·해운 중심 양국 협력관계, 순분야로 확산”

그리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 5일 수도 아테네에서 조동규 그리스 한인회장, 정지숙 한글학교장 등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박 의장은 이날 아테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동포 사회가 화합하는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활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올해가 그리스가 독립을 선포한지 200년이고 양국이 수교를 맺은지 6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은 한국의 문화 사절, 민간 외교관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일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과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국회의장과 연쇄 회동을 하는 것을 언급한 뒤 “조선과



그리스를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테네 한 호텔에서 열린 그리스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운 중심으로 가져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행사 대표인 김미경 씨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빨리 종식되길 기다릴 뿐”이라면서 “여행·관광업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무명용사의 비와 한 국전 참전 기념비를 각각 참배했다.

박 의장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를 한 뒤 요르고스 루타스 참전용사협회 부회장에게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면서 “참전 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 사업과 지원 사업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귀국 희망 사할린 한인 1천71명, 책정 인원 3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신청자 몰려, 순차적으로 반영

올해부터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을 신청한 사할린 한인이, 올해 정부가 정한 인원의 3배가량인 1천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영주귀국 인원을 350명으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영주귀국 절차를 대행하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각 지역 공관에 접수된 서류를 받아 적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자·신청 후 취소 현황 등을 파악하면 약간의 숫자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 신청자가 대폭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



대한적십자사는 러시아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2월 영주귀국 대상으로 선정돼 인천공항에 도착한 사할린 한인들.

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만 영주귀국 대상자였으나 이번에는 8촌 이내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포함됐다.

정부는 대상자를 선정해 9월에 통보한다. 입국 절차의 한 과정으로 12월에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한국 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캠프를 운영한다. 이후 건강검진과 정착 지원, 국적 판정 신청, 국적 취득 일정을 밟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예산이 정해져 올해는 기존대로 350명만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부터 사업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영주귀국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할린에는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세는 530여 명, 2세는 5천여 명이다.

‘맛의 보고장’ 이탈리아 현지 한식당 ‘미슐랭 더플레이트’ 선정

로마 한식당 ‘가인’ ... 한인회 “한식 현지 진출 40년 만에 처음”

최근 이탈리아 현지 한식당이 세계 맛집 지침서인 ‘가이드 미슐랭’ (한국명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돼 눈길을 끈다.

8월 3일(현지시간) 현지 교민사회에 따르면 로마 중심가에 위치한 한식당 ‘가인’이 최근 이탈리아판 미슐랭 ‘더 플레이트’ (The Michelin Plate) 등급에 포함됐다.

미슐랭 더 플레이트는 ‘스타’, ‘빍 구르망’ (Bib Gourmand)에 이어 2018년 도입된 맛집 등급이다. 신선한 재료로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 주어진다.

미슐랭은 가인에 대해 “고유한 전통과 특성을 가진 한국 요리가 이탈리아에서 그리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가족 경영 레스토랑은 한국 요리를 알리기 위한



최근 이탈리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로마 중심가에 위치한 한식당 ‘가인’의 정인식 대표(왼쪽)와 다니엘 김 셰프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라고 소개했다.

가인은 2007년 개업 이래 줄곧 한국인 셰프만을 고집해온 현지에 몇 안 되는 한식당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주교황청 한국대사관 전속 요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셰프 다니엘 김(한국명 김경모·52)과 10년 넘게 함께 하고 있다.

셰프 김씨는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탈리아 현지인들에게 한식의 진가와 참맛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이탈리아 한인회의 최병일 회장은 “한식당이 이탈리아에 뿌리를 내린 지

40여 년째인데 미슐랭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한식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뜻한 한류’ ... 한국문화원, 브라질 취약계층에 온정 전달

현지 문화기관 통해 식료품·생필품 등 100상자 전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브라질의 취약계층에 한국의 정을 담은 지원 물품이 전해졌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7월 23일 상파울루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상파울루주 정부 산타 마르셀리나 학교를 찾아 즉석밥·김치·김·라면·소금·밀가루 등 한국 식료품과 브라질의 식료품·생필품을 담은 지원 물품 100상자를 전달했다. 이 학교는 디자인 분야에 널리 알려진 학교다.

전달식은 황인상 상파울루 총영사와 김완국 한국문화원장, 파울루 주벤 산타 마르셀리나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황 총영사는 “한류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 간 문화 교류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특히 브라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부와 나눔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물품은 산타 마르셀리나 학교가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 음악 교육 캠페인 ‘음악을 나누다, 삶을 나누다’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된다.

문화원과 산타 마르셀리나 학교는 수년 전부터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어려워지자 ‘음악을 나누다, 생명을 나누다’라는 이름의 소외계층 지원으로 눈을 돌렸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엑소더스' ... 7월 한국인 1천600명 출국

외국인 1만9천명 출국... 일본·대만·사우디 등 전세기 띄워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세를 겪으면서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 1만9천명이 출국하는 '엑소더스'(탈출) 현상을 보였다.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민국 수카르노-하타공항 사무소는 "7월 초부터 1만9천명의 외국인이 출국했다"며 "특히 최근 사흘간 출국 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7월 27일 발표했다.

일본인이 2천962명, 중국인이 2천219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한국인으로, 1천616명이 떠났다. 이어 미국인 1천425명, 프랑스인 842명, 러시아인 705명, 영국인 700명, 독일인 615명, 사우디아라비아인 546명 순으로 출국했다.

자카르타 수도권 등 대도시 병원의 코로나 병상 점유율이 80



코로나19 폭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행렬.

~90%를 오가는 가운데, 외국인인 병실을 구하기도 힘들고 의료 수준도 열악한데다 백신 접종마저 어려워 본국으로 돌아가는 인원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인들도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줄줄이 귀국길에 올랐다. 한인 감염자는 7월 말 기준 누적 331명이고, 이 가운데 16명이 숨졌다.

대사관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원까지 추정해보면 6월부터 1천명 이상의 한인이 감염됐고, 20명 이상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

현재 자카르타~인천 여객기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씩 운항하고 있으며,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도 정기노선을 운항 중이다.

현재 자카르타~인천 여객기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씩 운항하고 있으며,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도 정기노선을 운항 중이다.

한글 '김치' 유니폼 입고 짜릿한 승리 거둔 미 마이너리그 구단

더블A 팀인 몽고메리 비스킷츠... 현대차 진출·한인타운도 형성

미국프로야구(MLB) 마이너리그 더블A 팀인 몽고메리 비스킷츠 구단은 7월 16일 하루 한글로 '김치'라고 적힌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등번호에는 김치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넣었다.

이 팀은 이날 몽고메리 홈경기에서 상대 팀인 빌록시 슈커스에 9대 8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장 매점에서는 구단 상징인 비스킷에 김치 소스를 얹은 김치 비스킷과 김치 나초, 군만두가 판매됐다. 선수들이 입은 '김치 유니폼'은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구단 홈페이지에서는 '김치 유니폼'과 김치를 캐릭터화한 티셔츠 등도 판매됐다. 또 '한국 문화유산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전통무용 등 다양한 한국문화도 소개됐다.



한글로 '김치'라고 적힌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해 승리를 거둔 비스킷츠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몽고메리에는 2005년 현대차 앨라배마 제조법인(HMMA) 진출을 계기로 관련 한국 기업이 주변에 속속 들어서고 있고 한인타운이 형성되고 한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앨라배마주의 교육·경제 교류를 추진해온 한인 비영리단체 'A-KEEP' (Alabama Korea Education and Economic Partner)과 구단이 손잡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순 A-KEEP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한국과 앨라배마주의 학생 및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피 매니저는 내년에도 한국 유산의 밤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창**



광복회 호주지회, 9월 동포 차세대 '민족캠프' 개최

광복회 호주지회(회장 황명하)는 동포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민족캠프'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열린다. 9월 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역사·문화·통일, 인성 관련 강의와 조별 활동이 이어진다. 호주 내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고교 8학년 이상 청소년이 대상이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hkia815@hot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민족캠프 발표회와 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뉴욕서 한인 'K스타트업' 생태계 만든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는 7월 28일 미국 뉴욕 한국센터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주뉴욕총영사관 등 6개 기관과 함께 한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한인창업인협회, 뉴욕시립대, 주미한국상공회의소, 코트라 북미지역본부도 참여했다. 장원삼 주뉴욕총영사는 "뉴욕은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도시"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한인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실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옥타, 해외한인 차세대 경제인 1천400명 양성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오는 11월까지 세계 11개국 18개 도시에서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학교를 열어 한인 차세대 경제인 1천400명을 양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병행 등의 방식으로 열린다. 이 프로그램에는 재외동포 1.5~4세로, 만 39세 이하만 참여한다. 무역 실무와 창업 노하우, 한민족 정체성 등을 교육한다. 지난해까지 16년간 수료자는 2만3천명에 달한다. 8월에는 중국 선양, 이우, 엔지, 미국 뉴욕·뉴저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역 통합 형태로 열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



"베트남서 확진·격리되면 대사관·한인회에 꼭 알려야"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뒤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단체가 감염시 대처 요령을 공지했다. 하노이한인회가 최근 배포한 공지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키트를 이용한 신속 검사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이 나오면 베트남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확진시 본인이나 밀접 접촉자는 대사관이나 한인회, 가족, 지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특히 당국에 의해 시설에 격리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한인회 및 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복의날' 이끈 美 한인 청소년들, 민주평통 방문

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던 미국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는 26일 오후 중구 민주평통사무처를 방문해 정 수석부의장과 면담했다. AAYC 학생들은 10월 21일 미국에서 개최될 한복의 날 행사를 앞두고 한국을 찾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연계 협약을 맺는 등 행사 준비를 위한 탐방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차기 회장에 김영기 시카고대 교수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차기 회장에 김영기 시카고대 물리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이 단체는 한미 간 최대 규모 과학기술자대회인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개최 준비를 위해 1년 전 차기 회장을 뽑는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고에너지 입자물리연구소인 미국 페르미 연구소 부소장을 지냈고, 미국 물리학회 입자 물리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물리학회 펠로에 선정됐고, 과학 저널 '디스커버' 지가 뽑은 '21세기의 세계과학을 이끌 20인의 과학자' 중 한 사람에 포함되기도 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okf.or.kr)로 보내주세요

코로나 위기에 손 맞잡은 미얀마 한인사회 “함께 헤쳐나갑시다”

감염자 재택치료 치료용 산소발생기 구입 등에 성금 줄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강타한 미얀마에서 한인 사회가 손을 맞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최근 한인 3명이 코로나19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충격과 함께 ‘한인 사회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특히 처음과 두 번째 사망한 한인 모두 호흡곤란이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미얀마 병원들이 외국인 감염자를 받아주지 않는 데다가 정부 통제로 의료용 산소통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온라인 단체방에서 두려움을 토로했고 결국 한인회(회장 이병수)가 나섰다. 한인회는 대사관과 코트라, 한인 봉제협회, 코참(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여러 단체와 논의 끝에 치료용 산소발생기를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산소통을 구입해도 충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대사관은 외교 행낭으로 운송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해 7월 21일에 26대를 들여올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위중한 증세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보내는 환자들에게는 미얀마 주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측이 치료용 산소발생기 4대를 한국에서 들여와서 건네어 숨통을 텃다.

산소발생기 한 대는 혈중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한



이병수 미얀마 한인회장(맨 오른쪽)이 7월 21일 양곤 공항에 외교행낭으로 도착한 산소발생기 26대를 주미안마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다. 한인회가 제공한 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 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오른쪽).

동포에게 전달됐고, 즉시 안정을 찾았다고 한인회는 밝혔다. 나머지 산소발생기 3대도 호흡곤란 증상이 심한 한인들에게 전달돼 위기를 넘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이 장치가 긴급히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앞장서서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한인회는 전했다.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로를 먼저 생각해 주는 훈훈한 장면도 이어지고 있다.

한인회가 산소발생기 도입을 추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약 50곳에서 산소발생기 구매에 사용돼 달라며 성금이 답지했고 7월 중순 기준으

로 7천여 만원이 모여졌다.

이밖에도 의약품을 사기 어려운 현지 사정을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약품을 나누려는 한인들도 더 늘었다.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된 산소통을 제공하겠다는 이도 있었다. 감염으로 투병 중에 한인 마트에 고기를 주문했던 환자는 회복후 더 힘든이를 위해 사용하라고 200만원을 한인회에 보내오기도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손을 맞잡은 한인 사회 모습에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서 한 동포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제 한숨 돌리겠다 싶은 생각에...”라며 “한인회와 한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장**

영국 하원서 美한반도평화법안 지지 결의안 발의

데이비 의원 등 6명 서명... “영국 정부, 한반도 평화노력 촉구”

미국 하원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7월 23일 미국의 한인유권자운동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인 에드 데이비 하원 의원은 7월 19일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영국 하원에 제출했다.

데이비 의원은 영국 하원 내 친한파로 ‘한국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의장이기도 하다. 현재 이 결의안에는 데이비 의원을 포함해 자유민주당 2명, 보수당 1명, 민주통합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6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포괄적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구속력이 있는 법안 형태로 담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 관심을 모았다. 셔먼 의원의 법안은 지금까지 미 하원에서 11명이 추가로 지지하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데이비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려는 새로운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셔먼 의원



의 발의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징적 움직임은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한다”며 한국전쟁이 1953년 휴전된 이후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못했음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데이비 의원은 결의안에서 영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촉진을 위한 독자 노력에서 역할을 해 왔다면 이런 노력을 가속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더 넓은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의 경우 지난 5월 셔먼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

속 174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86명이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 의원은 우선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 관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맞출 것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이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과 화상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영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주체가 아니라서 미국처럼 앞서 나갈 입장은 아니지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일원으로 발언권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을 낸 것만으로도 정부를 포함해 각계의 관심을 끄는 의의가 있으며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장**

재외동포재단,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증개축에 50만달러 지원하기로



김진덕·정경식재단과 샌프란시스코한인회가 7월 2일 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재외동포재단의 한인회관 증·개축 지원 결정에 대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의 증·개축 공사에 50만 달러(약 5억6천6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안부·독도 알리기 운동을 벌이는 김진덕·정경식재단과 샌프란시스코한인회는 7월 2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지원 결정 기념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한인회는 앞서 김진덕·정경식재단이 증·개축 공사를 위해 기부한 100만달러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50만달러 등 150만달러를 들여 한인회관을 리노베이션할 계획이다.

김진덕·정경식재단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결정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한 한인회관 증·개축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밝혔다.

샌프란시스코한인회도 “새로 단장된 한인회관은 지역 한인들의 보금자리로 거듭나 한인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폭동 피해’ 남아공 더반 한인회 긴급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폭동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줄루나탈(더반) 한인회에 기본 생필품 구입비용을 긴급 지원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주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대사관이 최근 폭동 피해를 본 더반 한인회 측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맨 왼쪽이 이광진 한인회 회장, 가운데는 김신우 총무서기관

지난 7월 8일 제이콥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수감으로 촉발된 폭동사태의 중심지인 더반 지역의 동포사회는 10여 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약탈 및 방화 피해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형마트와 물류창고가 집중적으로 약탈당해 물류기능이 마비되고 기본적인 외출조차 불가능해지자, 더반 한인회는 현지의 우리 동포들에게 기본 생필품을 공급하고자 긴급 구호사업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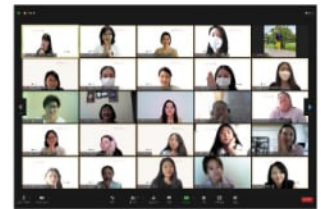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남아공 폭동사태로 동포사회의 안전이 지속 위협받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재외동포재단, CIS지역 한국어교사 온라인 연수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한국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6일부터 5주간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3개국 36명의 한글학교 교사 및 현지 학교 한국어 교사가 참가한다. 또한 정규 연수생 외에 청강생 28명을 선발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26일 온라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연수를 시작했으며, 5주 동안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수업, 비대면 한국역사·문화 특강, 교수법 특강 및 교육 실습 등에 참여한다.



재단은 7월 26일부터 5주간 CIS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차세대 고려인 동포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는 한국어 교사로서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연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한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사전 등록 6월 28일부터 시작

재외동포재단은 '제19차 세계한상대회'의 사전 등록을 6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다.

현장 쇼룸을 비롯해 일대일비즈니스미팅, 기업 IR, 세미나, 투자유치설명회,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대회의 참가등록은 9월 30일까지 한상넷(www.hansang.net)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등록은 받지 않는다. 일대일비즈니스미팅, 현장쇼룸 신청도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쇼룸의 경우, 사전 공간 구성을 위해 9월 10일 조기 마감될 예정이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시행하는 세계한상대회에서 우리 한상분들을 만날 것이 기대된다. 충청 지역 최초 개최이자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축제의 세계한상대회가 올해는 10월 19~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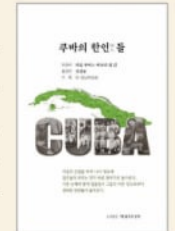
뿌리 예바 틴드 / 산지니

가족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된다. 이 여정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고, 특징의 국가나 사회 등에 속하며 나타나는 정체성 혼란이 계속된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작가는 작품에 나타난 뿌리에 대한 이야기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 겪었던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가 예바 틴드는 1974년 1월 부산 출생으로 가족의 사정으로 입양되어 덴마크와 한국 두 국가에 뿌리를 내린 한국계 덴마크 작가이다.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는 뿌리는 자신이 속한 국가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근원적 개념을 말한다. 작품을 통해 뿌리의 근원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형성되었는지 확인해보자.



쿠바의 한인들 라울 루이스, 마르타 림 김 지음 / 자유미디어

2021년 올해는 1905년 1천여명의 한국인들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멕시코에서 생활하다가 그 일부가 쿠바로 정착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시국과 가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떠난 타국 행은 고된 노동과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의 여정이었다. 100년이란 시간 동안 한인들은 모국을 그리워하며 '아리랑'의 가락이 펼쳐기도 했고 현재는 K-POP이 펼쳐지기도 한다. 한국인들이 지나온 발자국과 지금의 모습이 담긴 책이 21년도 100주년에 맞춰 발간되었다. 항상 모국을 그리워했던 그들의 100년 발자취를 돌아보자.



하얀 국화 메리 린 브락트 / 문학세계사

'하얀 국화'는 제주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가 한국 현대사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희생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메리 린 브락트의 첫 장편소설로, 이 작가는 '가디언'지의 2018년 주목할 만한 10명의 작가로도 선정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 동포작가의 눈으로 표현된 한국 현대사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작품 제목 '하얀 국화'는 한국적 이미지로 '정례', '결의'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의 단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자.



정부, 외국인·재외동포 우수 인재 적극 유치

법무부는 인구 감소 상황에 대비해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재외동포 우수 인재 적극 유치를 포함한 외국 인력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우수 인재와 중국·구소련의 우수 동포에게는 각각 거주 자격(F-2 비자)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F-4비자)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수인재로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들.

법무부는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유망 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거주 자격(F-2 비자)을 허용해 한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에게는 출신 국가에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학습 등 평생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IT) 산업과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형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분야의 원격근무자를 위한 체류비자 신설도 구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산업 현장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기준 1천250명으로 제한된 숙련기능 인력을 2025년까지 2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 개도국 돕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참여 공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 발전을 돕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파트너로 참여할 예비창업가·스타트업·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 ODA',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등이다. 또 KOICA 중점 사업 분야인 교육·보건 의료·농촌 개발·교통·여성 분야도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아시아·중양아·CIS·아프리카 등 14개국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사업 관리, 후속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에 6개월~2년 최대 3억 원을, 시범 사업이나 비즈니스 준비사업에는 12~30개월 최대 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제안서 마감은 9월 15일이며,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홈페이지(www.koica.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아프리카재단,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혁신 포럼 개최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여운기)과 제주포럼은 지난 6월 24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 세션을 개최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 세션을 개최했다.

여운기 이사장은 "아프리카대륙은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개혁을 맞이하고 있고, 전 세계 모바일 머니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프리카가 모바일금융 등에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아프리카를 무대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아mani 아부-자이드 에너지·인프라 집행위원은 올해부터 본격적 이행이 시작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소개하며 "아프리카의 역내무역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프리카연합(AU)이 추진 중인 디지털혁신 이니셔티브 및 전략들을 공유했다. 

한국정부, 재외국민을 위한 솔리다리테 정책 개발해야



최인숙

고려대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파리정치대학 정치학박사

‘기즈나’(絆)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을 의미하는 일본어다. 이 단어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 때 일본사회 전체를 지탱해 주는 상징어였다. 따라서 ‘絆’은 2011년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한자로 기록됐다.

위기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서로 결속하는 것이다. 가족이 결속하고, 이웃이 결속하고, 지역사회가 결속한다면 그 무엇이 두려우랴! 한 개의 대나무는 부러져도 여러 개의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이 논리는 전 세계를 망라한다. 프랑스 역시 코로나 정국 속에서 ‘솔리다리테’(solidarite)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상호의존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즈나와 상통한다. 코로나 19로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이 속출하자 프랑스 정부는 국민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프랑스 재외국민들을 위한 것도 있다. 지난해 프랑스 외무성은 재외국민들을 위한 솔리다리테 원조(SOS)를 임시로 설치했다. 피해를 입은 재외 프랑스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자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자, 올해까지 연장운영 중이다. 솔리다리테 원조수당은 6회에 걸쳐 지급된다. 대상은 거주지나 단체에서 이미 원조를 받거나 가족수당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의 영사관에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장사본이다. 수당 액수는 거주국 별로 다르다. 독일에 거주하는 재외 프랑스인들의 경우, 독신자, 혹은 자녀가 없는 부부는 187유로(약 25만원)를, 2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437유로(약 6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솔리다리테는 또 있다. 3백만 전 재외프랑스인에게 공급하는 코로나 백신이다. 르몽드(Le Monde)에 따르면, 지난 4월 장-바티스트 르모인 해외 프랑스국민 담당장관은 피선거권을 가진 84%의 재외프랑스인에게 화이자, 비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거주국의 의료보험공단에 백신 신청을 하면,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알려 주는 시스템이다.

어려울 때 재외국민을 챙기려는 프랑스정부의 섬세함이 인상적이다. 힘들 때 타향 살이는 더욱 외롭다. 이럴 때 조국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찡한 감동은 물론, 자기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우리 정부 역시 마스크를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흔히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고 한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재외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750만 명의 재외동포에게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려면 그들을 위한 솔리다리테 정책을 더욱 펼쳐야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하고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 Korean Festival: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재단이 주최하는 ‘2021 Korean Festival: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계한인의 날 15주년(10월 5일)을 맞아 열리는 ‘2021 Korean Festival: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는 세계 곳곳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흥이 많은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로 대결을 펼치는 축제의 장이다. 이 행사는 10월 9일 12시 10분 MBN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노래에 재능을 가진 국내외 거주 재외동포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해외 시민권자·영주권자, 한인 후손, 입양인

등 외국 국적자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의 참가 방법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8월 27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노래 부르는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성곤 이사장은 “코리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 예능인의 모국무대 마련이라는 취지로 1998년 ‘제1회 재외동포 서울 예술제’ 이후 지속되어 온 행사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민족이 긍정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외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7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7월 1일: YBLN(영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간담회
- 7월 14일: 국인(차세대단체)간담회
- 7월 15일: 리딩CEO 의장단 회의
- 7월 16일: 재미한국학교연합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온라인)
- 7월 26일: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찾아가는 동포재단)
- 7월 28일: 한중남미협회 인터뷰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